

# 남원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문화아카데미'

남원춤·문화그림 가이드맵·아트가든, 내일부터 순차 개강

남원 문화도시 사업 3년차를 맞아 '도시문화아카데미' 3개 과목이 4월 5일, 11일, 20일 순차적으로 개강하여 운영된다. 수강생은 4월 1일부터 모집한다.

도시문화아카데미는 올해 처음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운영되는 '뽕'과 차별화를 두어 문화예술전문가를 중심으로 좀 더 전문화된 실습을 통하여 일상생활현장의 장소에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실습형 교육이다.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공모공고·접수·선정 절차를 거쳐 남원시민과 함께 남원의 일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3개의 체험·실습형 프로그램이 선정하였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남원춤 시즌Ⅱ」, 「내손안에, 남원-남원문화그림 가이드맵 만들기」, 「아트가든스쿨」로 그동안 남원에서 실험적으로 이루어지며 주목을 받은 프로그램들 문화도시 사업과 접목한 프로그램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4월 초부터 집수를 시작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4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은 「남원춤 시즌Ⅱ」이다.

한국무용협회 남원지부(지부장 박세광)

이 제안한 「남원춤 시즌Ⅱ」은 2015년도의 「남원춤을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게 쉽게 개발하여 보급하는 프로그램」으로 4월 첫째주부터 9월까지 누구나 신청 배울 수 있다.

또한 4월과 5월초에 보급된 춤은 올 춘향제에서 플래시몹을 다시 한번 선보일 예정이다.

4월 20일까지 2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는 「내손안에, 남원-남원문화그림 가이드맵 만들기」는 지리산씨협동조합이 제안한 프로그램이다.

지리산씨협동조합은 지리산권 문화예술, 지역자원 연계를 고민하는 커뮤니티로 남원시의 문화원형을 시민들이 활용하고 누리는 문화 가이드맵으로 재구성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직접 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문화지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 스케치 진행 등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인 인문강사, 화가, 디자이너, 작가 등의 도움으로 종합예술로 가이드맵을 제작하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의 자리를 마련한다.

4월 8일까지 2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4월 9일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아트가든스



남원시민의 일상이 문화예술의 기회가 되도록 운영하는 '도시문화 아카데미'

쿨은 예가립사업에서 양성된 아트가든스쿨 수강생들이 멘토가 되어 남원시민과 함께 남원의 유휴공간을 예술공간으로 바꾸는 조경을 실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남원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가 예술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도시 조경을 함으로써 사계절이 아름다운 도시로 자리매김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운영되는 '뽕'을

계기로 남원의 문화와 접목한 체험·실습형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껴 '도시문화 아카데미'를 신설하게 되었다.

남원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문화예술과 접목하여 남원시민의 일상이 문화예술의 기회였으면 한다. 남원의 문화를 만들어갈 3개의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남원=유영철기자

## 전북도립미술관 '신소장품전' 지난해 구입·기증 33점 전시

전북도립미술관은 4~15일 전북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전북도립미술관 2015년 신소장품전'을 열고 지난해 동안 구입과 기증을 통해 수집한 회화, 조각, 관화, 사진, 공예작품 33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미술·조형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를 인정받은 작품 수집에 공을 들여 국내 미술이 현대사류에 부응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미술관은 전병하, 이기림, 차유림, 김연경, 안봉주 등 전북 작가들의 작품을 포함해 미술관 주요 전시에 출품했던 작품들을 구입 전시한다.

이들의 작품은 전북 동시대미술의 경향을 반영하고 전북 현대미술사 정립의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미술관은 하정웅, 공주서미술관 명예관장이 기증한 관화작가 문승근의 작품을 비롯, 고 황소연, 전국광, 김광진, 윤재우 작가의 유작을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아 전시회를 마련한다.

더불어 전시회는 1980년대 한국미술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활동한 이흥덕, 박정애, 김영주, 김진열, 정복수, 김보중 작가의 작품도 수집 전시해 한국근현대미술사를 조명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시회는 한국·아시아 현대미술의 흐름에도 주목해 국의 작가 우카오중과 창신(중국), 마닛 스리야니치 품(태국), 야오루이중(대만)들의 작품도 전시한다.

이와 관련 미술관은 위 작품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우리의 사회사 및 현대미술의 경향을 비교하여 사유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내다봤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미술문화 자산을 축적해 나아가고 보존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 한국 전통춤 유니버스 형식으로 묶은 '향연'

간결한 무대에서 강렬한 색채펼쳐



무대미학이 돋보이는 정구호 연출가의 '향연'

지난해 12월 초연 당시 호평 받은 국립극장(극장장 안호상) 국립무용단의 '향연(響宴)'이 다시 무대에 오른다.

전통춤의 대가 조흥동씨 안무를 맡았다. 패션디자이너로서 다양한 문화, 예술 방면에서 창작자로 활동하는 정구호가 연출했다.

'향연'은 12개 한국 전통춤을 유니버스 형식으로 한 데 모았다. 전통 춤사위의 원형을 고수한 채 현대에 맞도록 무용수 구성과 무대 요소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했다. 한국무용의 동시대성을 꾀한 셈이다.

1막(봄)은 연희의 시작을 알리는 궁중 무용, 2막(여름)은 기원희를 바탕으로 한 종교무용, 3막(가을)은 다양한 민속 무용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4막(겨울)에는 '신태평무'를 배치, 태평상대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특히 국립무용단 대표 레퍼토리 '코리아 판타지'를 오늘날에 맞게 진화시킨 작품이다.

기존 '코리아 판타지'는 여성무용수의 춤이 중심을 이뤘다. 반면 '향연'은 남성성과 여성의 춤을 동등하게 배치, 에너지와 역동성을 높였다.

무용, 영화 등에서 모던미를 뽐내는 정구호는 이번 작품에서 춤 이외의 모든 요소를 최대한 덜어냈다.

전통춤 무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방색을 무대·의상·소품·영상 등에 각기 하나만 배치, 무대 전체를 하나의 오방색으로 완성한 '신태평무'가 모수다. 또 24명 무용수가 '오고무'를 추는 동안 360도 회전하는 무대에서는 춤과 색이 조화를 이룬다.

음악은 악기편성을 최소화했다. 박재

록(작곡)과 유인상(편곡 및 지휘)은 이번 재공연에서 12개의 작품별 특징이 드러날 수 있도록 편곡했다.

'향연'은 초연 이후 올해 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6 한국관광의 해' 개막식에 초청됐다. 2015년 문화예술 정책 분야의 12대 성과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16~19일 서울 잠정동 해오름극장, 8세 이상, 러닝타임 100분(중간휴식 없음), 2만~7만원, 국립극장 02-2280-4114 /정해은 기자

## 군산 예술의전당 전국 야외조각전

30여점 11월까지 전시

군산예술의전당은 개관 3주년을 맞이해 '전국야외조각전'을 개최한다.

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는 지금까지 만나 보지 못했던 전국 조각 작가들의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담은 30여점의 작품이 4월부터 11월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될 이번 전국야외조각전에는 서울, 경기, 충북, 전북출신의 강석원, 강용만, 엄혁용, 강인구, 류경원 등 30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예술과 창작혼이 불타는 멋진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LED, 자연석, 스테인레스 스틸, 화강석, 스틸파일프, 화강석 등 작품마다 다양한 소재를 지닌 조각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풍성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어두운 저녁을 아름답게 수놓는 빛을 이용한 작품들도 있어 예술의전당 야경에 아름다움을 한층 더해줄 것으로 보인다.

/군산=문정곤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익산쌍릉 출토유물 세미나

국립전주박물관, 일제강점기 공문서 검토

조선총독부박물관 자료 공개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은 지난 달 31일 '익산 쌍릉과 출토유물의 검토'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익산쌍릉(益山雙陵, 사적 제87호)"은 1917년 일제에 의해 약식 조사된 후, 매우 간략한 보고문만 사진 몇 장과 함께 알려졌으나, 그 조사결과로 사비기 왕릉과 동일한 구조와 규모를 가진 굴식돌방무덤(횡혈식석실 분)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 동안의 문헌 자료를 근거로 백제 무왕(武王재위 600~641)과 왕비의 능으로 알려져 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익산 쌍릉 출토 자료를 직접 정리한 국립전주박물관 연구진들의 주제 발표와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발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등을 검토하여 당시 익산쌍릉에 대한 조사 경위와 출토유물 정리 조사 출토유물에 대한 분석결과, 대왕릉 출토 목판 구조와 복원이라는 주제와 내용으로 이어졌다. 주제발표 내용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된 부분은 대왕릉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치아 분석결과와 관대 안에서 출토된 신라계토기 완(국립전주박물관 주장)이었다. 치아는 원래 6점이 출토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현재 4점만이 남아 있고, 분석결과 20~40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실정(국립전주박물관)은 대왕묘는 무왕이 부여로 환도한 630년 이전에 조성한 것이므로 641년에 사망한 무왕의 무덤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익산=장영원 기자

##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흥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4월 4일>

**▷쥐띠**  
46년생: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잘 통하는 운.  
60년생: 구설수, 시비가 따르는 운.  
72년생: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이다.  
84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니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의하고 결정하라.

**▷용띠**  
52년생: 자신의 주변에 참모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된다.  
64년생: 자신의 뜻을 굽힐 줄도 알아야 발전이 있는 법이다.  
76년생: 맺고 끊는 것을 정확히 해야 하는 운.  
88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능동적으로 진행하라.

**▷원숭이띠**  
56년생: 지금까지의 성취에 전희를 가져야 한 시기.  
68년생: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여라.  
80년생: 급진으로 인해 타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살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  
92년생: 실물수가 따르니 자신의 물건을 잘 관리하라.

**▷소띠**  
48년생: 자신만의 생각으로 진행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  
61년생: 시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운이다.  
73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주의하라.  
85년생: 중심을 잡고 일을 진행해야 하는 운이다.

**▷범띠**  
33년생: 외부는 화려한 듯 하나 내부적인 일은 혼란스러운 때.  
69년생: 금전적인 부분이나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노력하라.  
77년생: 사람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힘든 운.  
89년생: 지나친 욕심은 버리고 주변의 시선에 의식하지 말라.

**▷닭띠**  
57년생: 예상하고 있던 일이 빛나갈 수 있으나 그 후의 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69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해야 하는 운.  
81년생: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는 운이다.  
93년생: 급할수록 풀이가는 때.

**▷호랑이띠**  
50년생: 구설수가 발생하고 다른 사람의 적대감 살 수 있다.  
62년생: 서두르면 실패하니 마음을 다스리고 차분하게 행동하라.  
74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받으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86년생: 참고 인내하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되니 순간의 감정을 억눌러라.

**▷말띠**  
5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약함이 따르니 마음을 다잡으며 차근차근 진행하라.  
66년생: 생각하니 못했던 사람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78년생: 시소한 일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운.  
90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을 때에는 잠시 쉬어가라.

**▷개띠**  
49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니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라.  
61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은 좋으나 결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73년생: 부러니 이렇기때문으로부터 원망을 들을 수 있다.  
85년생: 조력자만 있을 수 있는 운.

**▷토끼띠**  
51년생: 제면보다는 실리든 중요시 하는 것이 좋은 운.  
63년생: 경쟁자를 만날 수 있는 운이다.  
75년생: 기존의 해오던 방식으로 현상유지 하는 것이 좋다. 갑작스러운 변동은 혼란만 야기한다.  
87년생: 정신적으로는 편안하지 않으나 밀직으로는 좋은 운이다.

**▷양띠**  
55년생: 크게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67년생: 주변의 칭찬들로 인해 이리저리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중요한 일은 뒤로 미뤄라.  
79년생: 쫓은 일 하러다 빨랐는 격.  
91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맺으니 큰일은 불리하다.

**▷돼지띠**  
47년생: 말과 행동을 할 때 상사와 사람에게 따라 구별해서 해야 하는 운.  
59년생: 타인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운.  
71년생: 매사 요령 있는 대처가 필요한 운이다.  
83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좋으나 지나친 욕심은 화근 부른다.